

## 대외협력본부

### 학내 기관 탐방

대외협력본부는 학술 교류 협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 분야 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 교류를 통한 국제화에도 내실을 거두고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학술 교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송호근 대외협력본부장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학술 교류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대외협력본부는 학술 지식과 대학문화의 공유를 위해 세계 유수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2007년 4월 19일) 집계된 현황을 보면 총 40개국 478개 대학과 유효한 학술 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양 대학교간에 본부 협정이 맺어진 곳은 35개국 118개 대학이며, 이 중 82개 대학과는 학생 교류 협정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서부터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대학까지 다양합니다.

국제 교류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학부 및 대학원생의 해외 수학 및 학점교류 확대와 중·단기 인턴제도 방안 등을 활성화하여 우리 학생들의 견문과 세계관의 지평을 넓히고 더불어 우수한 외국 학생들의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MBA의 경우에 외국 대학과의 복수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협정이라든가, 국제 하계강좌 개설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대학들과 e-Learning을 통한 강의 교류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현재 학내의 83동, 43-1동, 61동에는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호주 국립대학·동경대학·상가포르대학·스탠포드대학 등과 공동 강의를 운영해오고 있다(『온침파 배움』 2007년 봄호, 'e-Learning 포커스' 참조).

비디오 컨퍼런싱(Video Conferencing)\*을 통한 공동 강의를 위해 일단 서울 대·동경대·북경대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내년 봄쯤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단은 이 세 대학교가 MOU를 맺어 기관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강좌 공동 개발이나 강좌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e-Learning 강의를 개설한다든가 공유한다고 하면 아마 e-TL의 역할이 기대되겠죠.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한다면 활용 범위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희망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인터뷰를 학교 대학교로, 혹은 지원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신임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주십시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서울대가 국제 학술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e-TL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대의 강좌를 수강 내지는 청강이 가능한지 등의 문의가 CTL로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TL 시스템을 통해 학교간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국제 학술 교류는 기관, 이를테면 본부, 단과대학별, 연구기관별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적인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수강하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그 학점을 재학 중인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청강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접속 ID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제반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대외협력본부에서는 그 시작을 이번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CTL에서 개발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e-Learning 콘텐츠가 대외협력본부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 문화와 서울대 소개, e-TL 활용법 등 교환학생과 방문학생들을 위한 콘텐츠가 있다면 학기 초에 시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기 초마다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CTL의 한국 문화나 한국 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해준다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본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본부에서는 서울대학교가 국제적인 학술 허브가 되기 위한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금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될 국제 하계강좌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간 해외 대학원생, 국내 타대학원생, 본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두 개의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초빙한 자료센터 운영책임자 등 석학들과 본교 교수들이 릴레이 팀 티칭(Relay team teaching) 방식으로 운영하는 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을 알리고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국 학생들이 단순히 한시적으로 본교에 머물다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대학으로 돌아갔을 때 서울대의 학풍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

인터뷰: 미혜정(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지원부 선임연구원)